

어말 무성폐쇄음을 포함한 영어 자음군의 발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¹ 중앙대학교 영문과²

구 희 산¹ · 이 봉 경²

목 적

본 연구는 어말에 무성 폐쇄음 /p, t, k/로 끝나는 자음군이 위치할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의 발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연구방법

1. 실험자료

실험을 위해 사용된 자음군은 모두 어말에 /p, t, k/를 포함한 단어이며, 이들은 Kreidler(1989)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음소 배열 규칙에 의한 것이다. 음절 말에 4개의 자음군이 오는 경우는 제외시켰는데 이유는 이는 고립된 단어가 아니라 접사가 첨가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자음군의 유형이다.

1) 어말에 2개의 자음군이 오는 경우

/l/+/p, t, k/ : help, consult

nasal+/p, t, k/ : clamp, convent

fricative+/p, t, k/ : aircraft, exist

plosive+/p, t, k/ : concept, insect

2) 어말에 3개의 자음군이 오는 경우

plosive+fricative+/p, t, k/ : text, midst

nasal+obstruent+/p, t, k/ : prompt, against

2. 피실험자와 실험방법

피실험자는 미국인 4명과 한국인 10명이다. 미국인은 남성2명, 여성2명으로 모두 뉴욕주립대에 재학중이며, 한국인은 남성 5명, 여성 5명으로 모두 영어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다. 녹음은 Digital Voice Recorder를 사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음향분석프로그램인 PC quierer에 옮겨져 waveform과 spectrogram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음군의 유형별로 영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어말 무성음의 파열정도와 자음군의 발음을 분석하면,

1) 자음군이 2개인 경우 한국어 화자는 어말 무성 폐쇄음 앞에 /l/과 비음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지 않고 어말에만 //모음이 삽입하며, 파열음과 장애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자음군 사이와 어말에 모두 모음을 //삽입하는 현상이 강했다. 영어 화자의 경우 자음군 사이에는 모음을 삽입하지 않고 어말에만 모음을 삽입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2) 자음군이 3개인 경우, 파열음+마찰음+/p, t, k/의 구조일 때는 파열음과 마찰음 사이에는 모음을 삽입하지 않고 마찰음과 무성 폐쇄음 사이와 어말에 모음을 삽입하여 발음하나 다만, midst/mid s t /의 경우 두 군데 모두와 음

절 말에 //모음을 삽입하는 현상을 보였다. 비음+장애음+/p, t, k/인 경우에는 장애음과 무성폐쇄음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고 또한 어말에도 모음을 삽입하여 발음한다. 영어 화자의 경우 어말에 //모음을 삽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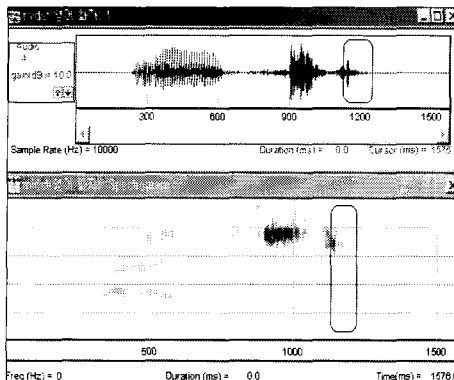


Fig. 1. 영어 화자의 midst/mid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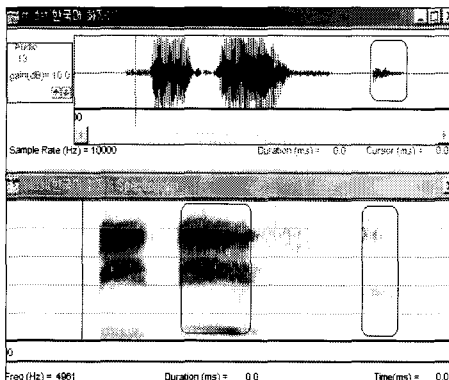


Fig. 2. 한국어 화자의 midst/m d st/.

(3) 어말에 /p, t, k/를 포함한 2개의 자음군과 3개의 자음군을 비교하면 한국인의 경우 3개의 자음군을 발음할 때 2개의 자음군을 발음할 때 보다 // 모음 삽입의 빈도가 훨씬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인의 경우는 2개의 자음군이 오거나 3개의 자음군이 오거나에 상관없는 비슷한 빈도수를 보여준다. 다음은 자음군수와 어말 /p, t, k/ 발음과의 관계를 비교한 표이다.

Table 1. 자음군수에 따른 어말 무성음의 파열정도(단위 : %)

	2개의 자음군			3개의 자음군		
	비파열	약한파열	모음삽입	비파열	약한파열	모음삽입
미국인	22	6	72	25	0	75
한국인	26	30	44	10	15	75

결론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 모두 어말에 무성폐쇄음이 위치하는 경우 파열하여 발음하며 //모음을 삽입하는 현상이 강하다. 차이점은 한국어의 경우 어말에 자음군이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음절말 뿐 아니라 자음군 사이에도 // 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한국어에 없는 음소배열을 발음할 때 한국어의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 화자와는 달리 2개의 자음군과 3개의 자음군의 마지막이 무성 폐쇄음인 경우에 2개의 자음군의 마지막이 무성폐쇄음일 때 파열을 덜하는 현상은 한국어는 어말에 2개의 자음군이 위치하면 하나의 음소만 발음하고 반드시 하나는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규칙을 영어를 발음할 때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의 자음군은 한국어에서 불가능한 음소배열 구조이므로 개개의 음소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여 음절수를 늘려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구희산. 영어음성학. 한국문화사;1998.
 전상범. 영어음성학. 을유문화사;1985.
 허웅. 국어음성학. 정음사;1965.
 황영순. 영어 폐쇄자음 발음 뒤에 나타나는 모음추가 현상. 음성과학 2000;7(4).
 현춘희. CV음운이론에 입각한 자음군 간소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1989.
 Ladfoged Peter. A course in Phonetics 3rd. Harcourt Brace & Company;1982.
 kreadler CW.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A course book in Phonology.Oxford: Basil Blackwell;1989.